

최저한세 납부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Alternative Minimum Tax Payment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전성민(Sung - Min Jeon)** · 이상혁(Sang - Hyuk Lee)***

〈요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최저한세 납부 여부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한다.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이월세액공제를 보유하고 있어 최저한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과는 다른 회계정보의 속성 및 재무보고행태를 보인다. 또한 이월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최저한세 적용여부에 따라 재무제표로 상이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교가능성의 저하를 예상하였다.

[연구방법]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최저한세 납부기업은 최저한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비교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한 재무제표 인식 시기와 방법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달라지게 되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최저한세 납부와 비교가능성의 관계는 회계이익 품질이 낮은 기업에서 더 큰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한세의 납부가 회계추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회계 인식의 시기 및 방법에 차이를 발생시켜 비교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최저한세와 비교가능성 간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비교가능성과 관련된 연구를 확장하였다. 또한 최저한세 제도가 정책상 목적 외에 기업의 회계정보 특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글검색어 : 최저한세, 이월세액공제,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회계정보품질

• 접수일자 : 2023.8.29. • 최종수정일자 : 2023.10.10. • 게재확정일자 : 2023.10.16.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기업경영연구원 연구위원(박사) (제1저자)

***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조교수 (교신저자)

I. 서 론

본 연구는 최저한세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한다. 재무제표가 비교가능하다는 것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 동일한 재무제표상 이익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De Franco et al., 2011). 즉, 유사한 경제적 사건은 유사하게, 상이한 경제적 사건은 상이하게 회계정보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의 정보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요구되는 회계이익의 특성이므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가진 전문투자자보다 누구에게나 공개된 재무제표를 활용해야하는 일반투자자에게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는 조세 형평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인 최저한세가 이러한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관련성을 가지는지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정책목적상의 조세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감면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조세혜택을 받는 납세자와 그렇지 못한 납세자 간에는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저한세는 이러한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재정 확보 측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을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17%의 세율을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의 최저한세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17%의 최저한세를 적용받는데 만약 각종 공제 및 감면을 적용해 산정된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을 경우 17%를 적용한 최저한세액을 내야 한다.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조세혜택을 적용하여 산출한 납부세액과 최저한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조세혜택을 적용하지 못하며, 최저한세로 적용되지 못한 조세혜택은 이월이 가능하여 차후 세액공제에 활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 납부기업은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차기의 세금을 낮출 수 있어 회계이익을 상향 조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익유연화 및 발생액의 질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종권, 2001 ; 배성호 외, 2012 ; 신영호와 오광욱, 2018). 한편, 비교가능성은 이익 속성과 재무보고 행태가 유사할수록 높아진다(De Franco et al., 2011).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과 납부하지 않은 기업 간 회계정보의 속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재무보고 행태에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비교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이월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면 경영자의 회계 추정치의 불확실성 또한 높아지게 되고 이는 비교가능성의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최저한세 적용여부에 따라 재무제표로 상이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교가능성이 낮아질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에서 2019년의 국내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최저한세 납부 여부와 비교가능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최저한세 납부기업은 최저한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비교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한 재무제표 인식 시기가 최저한세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처리로 인해 달라지게 되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최저한세 납부와 비교가능성의 관계는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으로 측정된 회계이익 품질이 낮은 기업에서 더 큰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이익 품질이 낮은 경우 경영자의 회계추정에 자의성 및 오차가 더 많이 포함된 것을 의미하는데, 최저한세의 납부가 회계추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회계 인식의 시기 및 방법에 차이를 발생시켜 비교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위의 분석결과는 법인세 현금 납부액을 사용할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또한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분석을 재수행한 경우에도 일관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여 관련 분야를 확장하였다. De Franco et al.(2011) 이후 관련 연구는 비교가능성의 효과에 집중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비교가능성의 결정요인으로서 조세정책이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비교가능성 연구 분야를 확장하였다. 또한, 세법상의 동기가 기업의 회계이익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저한세 제도는 조세 형평성 및 조세확보를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기업들은 이를 회계정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본시장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교가능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 관련 정책입안자 관점에서 조세정책이 본래의 정책목적 외에 투자, 회계선택 등 기업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 입안 시 이러한 점 또한 고려해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도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기업을 분석할 시, 동일한 경제적 성과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등 세무적 특성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2.1 선행연구

2.1.1 최저한세

최저한세 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이익조정과 같은 회계이익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으며(Gramlich, 1991 ; Boynton et al., 1992 ; 장기용, 1998 ; 고종권, 2001), 최저한세 적용이 기업의 주가나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하고 있다.

미국의 선행연구는 기업들이 최저한세 제도 도입 이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 회계이익을 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최저한세 제도가 적용된 회계연도의 소득을 법 시행 전 회계연도로 이전하여 최저한세를 적용받아 세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Gramlich, 1991 ; Dhaliwal and Wang, 1992 ; Manzon, 1992 ; Wang, 1994).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최저한세 납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최저한세 제도 도입 직전의 이익을 하향 조정하여 제도 실행 후 최저한세 납부대상이 되고자 하였다(권순용과 심한택, 2000 ; 고종권, 2001). 또한 장기용(1998)은 최저한세 납부기업의 경영자는 최저한세의 도입 전보다 이익을 보다 더 유연화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저한세 제도 도입 후, 최저한세 납부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배성호 외(2012)에 따르면 회계이익을 재량적으로 높이면 법인세비용이 증가하는데, 최저한세 납부기업은 최저한세 납부로 이월된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이러한 법인세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계사 간 소득이전을 활용한 상향 이익조정 유인이 더 강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석우 외(2012)는 앞선 연구를 확장하여 최저한세 납부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다른지 검증하였다. 최저한세 납부기업의 회계정보는 자본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데 이는 최저한세 납부기업의 회계정보에 재량성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의 부정적인 평가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신영효와 오광욱(2018)은 최저한세 납부 여부에 따라 회계정보의 품질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발생액의 속성을 검증하였으며, 최저한세 납부기업의 발생액의 질이 더 낮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신영효와 오광욱(2020)은 기업 수명주기에 따라 최저한세 납부에 따른 이익의 질의 영향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2.1.2 비교가능성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은 “정보의 유용성을 보장시키는 질적 특성으로서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으로 정의된다(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무제표에 표현될 수 있으나,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동일하게 표현하고, 다른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기록한다면 비교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해 회계정보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회계정보만으로 기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하므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높다면 기업의 절대적인 회계정보품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사용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김정택과 최우석, 2020).

De Franco et al.(2011)은 기업들이 동일한 경제적 사건을 얼마나 유사하게 재무제표상 이익으로 보고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측정방법을 개발하였다. De Franco et al.(2011)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부 정보이용자의 정보처리비용이 감소하고 보다 쉽게 재무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정보의 품질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비교가능성이 높으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고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불균형이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De Franco et al., 2011 ; Chen et al., 2018 ; Fang et al., 2016 ; Choi et al., 2019).

De Franco et al.(2011) 이후 비교가능성의 효과 및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Barth et al.(2012)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해외 기업이 미국기업에 비해 비교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회계정보의 생산에 관여하는 감사인의 일치성 여부가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Francis et al.(2014)은 BIG4 감사인에 따라 감사 행태가 다르고, 이러한 감사인 고유의 특성이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한편, 외부 모니터링 기관 또한 비교가능성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Endrawes et al.(2020)은 경영자의 재무보고 작성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인 감사위원회 규모가 커지고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비교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정택과 최우석(2020)은 주주권 보호와 관련된 기업지배구조가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주는 정보처리비용의 절감 및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에 관심을 가질 유인이 있다. 따라서 외부의 소액주주나 외국인투자자들이 경영자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비교가능한 회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회

계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경영자는 이러한 요구에 응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회계이익의 특성 또한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존재한다. 김용식과 박상훈(2018)은 이익유연화 수준 또는 이익유연화 가능성이 높을수록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익유연화를 통해서 시장에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여 정보 비대칭을 완화함으로써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승욱(2018)은 두 기업 간 재량적발생액의 차이가 작을수록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업 모두 하향이익 저품질의 회계이익을 가진다면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회계품질 외에도 기업의 외적 요인으로 인해 비교가능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Dhole et al.(2021)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기업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며 이익조정 가능성을 높여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이다. 또한, 문해원 외(2016)는 기업의 수명주기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달라짐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수명주기에 따라 기업의 회계정보 속성과 기업의 재무보고 행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명주기에 속할 경우 비교가능성도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승욱(2019)은 DuPont 분석을 활용하여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이 높을수록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익조정 수준이 높으면 이익창출능력과 비교가능성의 관련성이 약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세무적 특성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또한 존재한다. 박종일과 나경아(2016)는 비상장기업에서의 조세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과 달리 조세회피와 관련해서 대리인 비용이 낮다. 즉, 비상장기업의 조세회피는 상장기업에서 조세회피를 통해 자원을 경영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기회주의적 행동과 무관하므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2.2 연구가설의 설정

비교가능성이란 경제적 사건의 회계장부로의 인식과정이 동종산업의 타 기업과 유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최저한세의 적용이 기업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예상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한세 납부 여부에 따라서 회계정보의 특성 및 재무보고 행태가 달라지며, 이로 인해 비교가능성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최저한세로 인하여 사용되지 못한 세액공제는 이월이 되고 차기 연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라는 조세혜택을 보유하게 되며 이를 차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즉, 최저한세 납부기업은 이월공제액을 활용할 수 있어 차기 이익을 상향조정해도 그에 따른 조세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상향 이익조정 유인을 갖는다(배성호 외, 2012 ; 정석우 외, 2012). 최윤이(2020) 또한 최저한세 제도가 일시적 이익조정을 유인하여 이익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더해 최저한세 납부는 이익 유연화, 이익조정 유인, 이월공제에 따른 조세혜택에 따라 회계정보 질적 특성을 낮추는 영향을 가진다(신영효와 오광욱, 2018). 이처럼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의 회계이익 속성과 재무보고 행태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회계이익 속성과 재무보고 행태가 유사할수록 비교가능성이 높아지며(De Franco et al., 2011), 회계정보의 품질이 낮을수록 비교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최승욱, 2018).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과 납부하지 않은 기업 간 회계정보의 속성이 다르며 경영자의 재무보고 행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비교가능성이 하락할 수 있다. 즉, 최저한세 적용으로 발생하는 경영자의 의도적인 회계처리는 평균적 수준에서 동종업계 기업과의 회계정보 비교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둘째, 최저한세 납부 여부에 따라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달라지고 이는 비교가능성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미래 현금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는 기업의 실제 내재가치를 정확히 반영한다(Scott, 2014). 따라서 재무제표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완벽하게 비교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무보고는 미래 현금흐름의 유입 시기에 대한 예측을 요구하며 이는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다. 기업은 각종 조세혜택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낮으면 최저한세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최저한세 적용 여부 및 이월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면 경영자의 회계 추정의 불확실성 또한 높아지게 되고 이는 비교가능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불확실성이 낮은 기업들의 회계정보 인식과정은 변동성이 높은 기업들에 비해 일관성이 있다. 반면, 여러 변동성으로 인해 경제적 사건의 인식을 지연하거나 즉시 인식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은 동종산업에 속한 타 기업들에 비해 평균적인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최승욱, 2019). Dhole et al.(2021)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

아질수록 현금흐름의 불확실성 또한 높아져 비교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재무제표가 비교가능하다는 것은 유사한 경제적 사건의 발생시 이를 유사한 수준의 회계정보로 인식함을 의미하므로,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방식 또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기업 간 성과의 비교를 하는 데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이는 비교가능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1] 최저한세 납부 기업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음(-)의 관련성을 가진다.

한편, 최저한세 납부 여부와 비교가능성의 관련성은 기업 특성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회계이익의 품질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다. 회계이익은 현금흐름과 발생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생액은 경영자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며 경영자의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Francis et al., 2005). 발생액의 질이 회계이익의 품질을 결정하게 되며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 불확실하거나 경영자의 자의성이 포함된다면 재량적발생액이 많아져 회계이익의 품질이 낮아진다. 즉, 재량적발생액에는 불확실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만약 재량적발생액 수준이 높은 기업이라면 외부 불확실성에 의한 미래 현금흐름 예측 및 인식이 더욱 어려워지고 이는 비교가능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Dhole et al., 2021). 따라서 재량적발생액이 큰 기업이 회계추정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최저한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회계정보에 포함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최저한세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반대로 재량적발생액이 작은 기업의 경우 미래 현금흐름 추정의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최저한세 납부로 인한 회계추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더라도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또한 최승욱(2018)은 기업 간 재량적발생액 크기의 차이가 작을수록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저품질의 회계이익을 가지면 재량적발생액의 방향과 무관하게 재무제표가 비교가능하지 않음을 제시하여 재량적발생액과 비교가능성 간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면 최저한세 납부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관련성이 재량적발생액으로 측정된 회계이익 품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2] 최저한세 납부 기업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관련성은 회계이익의 품질에 따라 달라진다.

Ⅲ. 표본 및 연구모형

3.1 표본의 선정 과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선정 과정을 <Table 1>에서 제시한다. 먼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COVID-19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2019년까지로 한정하여 표본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표본 간 재무제표의 형태나 제공하는 정보가 유사하도록 금융업에 속한 기업-연도와 결산월이 12월 외 도래하는 기업-연도를 표본에서 제외한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통제변수에 포함된 재량적발생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산업-연도별로 10개 미만인 기업-연도 또한 표본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를 측정할 수 없는 표본을 제외한다. 표본 선정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포함된 변수는 10,536개 기업-연도이다.

<Table 1> Sample Selection

Criteria	Firm-years
Firm-year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 from 2011 to 2019	16,199
(Less) Financial firm-years	(654)
(Less) Non-December fiscal year-end	(499)
(Less) Industry-years less than 10 observations	(2,079)
(Less) Unavailable to measure main variables	(3,188)
Final Sample	9,779

3.2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측정

본 연구에서는 De Franco et al.(2011)의 방법을 활용하여 종속변수를 측정한다. De Franco et al.(2011)은 어떤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건은 해당 기업의 회계시스템을 거쳐 재무제표에 기록되고, 만약 서로 다른 두 개 기업이 유사한 회계시스템을 보유한다면 유사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개 기업의 재무제표에 발생한 경제적 사건이 유사하게 기록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먼저, 식(1)을 이용하여 i 기업의 기업-연도별 직전 16분기의 주가수익률과 분기순이익을

회귀분석하여 계수값을 추정한다. 회귀분석으로 추정된 α_i 와 β_i 의 값을 De Franco et al. (2011)에서 설명하는 i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회계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또한 i기업과 동일한 산업-연도에 속하는 j기업에 대해서도 식(1)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α_j 와 β_j 를 추정한다.

$$Earnings_{it} = \alpha_i + \beta_i Return_{it} + \epsilon_{it} \quad (1)$$

Earnings : 분기순이익 / 분기초 총자본의 시장가치 ;

Return : 분기별 추가수익률.

다음으로, i기업의 분기별 추가수익률을 i기업의 회계시스템, 즉, 위의 식(1)의 회귀분석으로 추정된 α_i 와 β_i 의 값으로 나타낸 식(2)와 α_j 와 β_j 의 값으로 j기업의 회계시스템을 나타낸 식(3)에 대입하여 i기업과 j기업 각각의 기대순이익을 산출한다.

$$E(Earnings)_{iit} = \hat{\alpha}_i + \hat{\beta}_i Return_{it} \quad (2)$$

$$E(Earnings)_{ijt} = \hat{\alpha}_j + \hat{\beta}_j Return_{it} \quad (3)$$

변수의 정의는 식(1)을 참조.

마지막으로, 식(4)에서 식(2)와 식(3)을 활용하여 산출한 i기업과 j기업의 기대순이익의 차이를 통해 동일한 경제적 사건(ex. i기업의 분기별 추가수익률)이 회계시스템에 반영되는 정도인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별로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측정할 때 측정 대상 기업과 동일한 산업-연도에 포함된 기업들을 이용하였으며, 직전 16분기의 기대순이익 차이값들을 활용하여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i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측정할 때 i기업과 동일한 산업-연도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과의 직전 16분기 기대순이익 차이 절대값의 평균을 산출하고, 회귀계수에 대한 해석의 편의를 위해 (-1)을 곱한 값으로 측정한다. (-1)을 곱한 값으로 측정하는 경우 측정된 값이 클수록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속변수 산정 시 기업별로 측정된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상위 4개 값의 평균을 *COMPAVG*로, 중간값을 *COMPMED*으로 표시한다.

$$OMP_{ijt} = -1/16 \times \sum_{t-15}^t |E(Earnings)_{iit} - E(Earnings)_{ijt}| \quad (4)$$

변수의 정의는 식(1)을 참조.

3.3 연구모형

기업의 최저한세 납부 여부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의 식 (5)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begin{aligned} COMP_{it+1} = & \alpha_0 + \beta_1 MINTAXDY_{it} + \beta_2 SIZE_{it} + \beta_3 DEBT_{it} + \beta_4 BTM_{it} \\ & + \beta_5 SALESGR_{it} + \beta_6 OUTSALES_{it} + \beta_7 ROA_{it} + \beta_8 DA_{it} + \beta_9 LOSS_{it} \\ & + \beta_{10} BIG4_{it} + \beta_{11} KOSPI_{it} + IND + YEAR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5)$$

<i>COMP</i>	: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i>COMPAVG</i> 와 <i>COMPMED</i> 로 측정;
<i>COMPAVG</i>	: 기업별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중 상위 4개 값의 평균;
<i>COMPMED</i>	: 기업별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중간값;
<i>MINTAXDY</i>	: 최저한세 납부 대상인 경우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
<i>SIZE</i>	: 기업규모(=ln(총자산));
<i>DEBT</i>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i>BTM</i>	: 장부-시장비율(=총자본의 장부가치/총자본의 시장가치);
<i>SALESGR</i>	: 당기 매출액성장률;
<i>OUTSALES</i>	: 수출비중(=수출액/총매출액);
<i>ROA</i>	: 총자산수익률(=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i>DA</i>	: 재량적발생액;
<i>LOSS</i>	: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
<i>BIG4</i>	: 대형회계법인에게 감사받은 경우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
<i>KOSPI</i>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경우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
<i>IND</i>	: 산업더미변수;
<i>YEAR</i>	: 연도더미변수;
ε	: 잔차항.

연구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수는 앞 절에서 설명한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COMPAVG*와 *COMPMED*로 설정한다. 독립변수는 기업이 최저한세 납부 대상인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MINTAXDY*)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기업별로 유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1의 값을 부여하며(오광욱 외, 2011; 배성호 외, 2012)¹⁾, 유효세율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또한 최저한세 납부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간 실질적인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차기의 재무

1)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에 대응하는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은 7%, 중소기업 이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00억 이하는 10%, 100억 초과 1,000억 이하는 11%(2011년~2012년), 12%(2013년~), 1,000억 초과는 14%(2011년~2012년), 16%(2013년), 17%(2014년~)이다.

제표 비교가능성으로 설정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내생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로 설정한다(김정택과 최우석, 2020 ; 안혜진 외, 2020). 개별 기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DEBT), 장부-시장비율(BTM)을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다음으로, 기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당기 매출액성장률(SALESGR), 총자산수익률(ROA),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LOSS)를 연구모형에 포함한다. 기업이 수행하는 영업의 복잡성은 수출비중(OUTSALES)을 활용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기업의 재무보고 품질은 재량적발생액(DA)과 대형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았는지 여부(BIG4) 변수로 연구모형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상장된 시장의 특성과 더불어 산업·연도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여부(KOSPI),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1의 값을 부여한 산업더미변수(IND) 및 연도별로 1의 값을 부여한 연도더미변수(YEAR)를 통제한다. 모든 연속변수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가 극단치로 인해 나타날 개연성을 완화하기 위해 1%와 99%를 초과하는 값을 1%와 99% 값으로 조정한다(winsorizing).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에 대한 연구모형은 식(5)를 동일하게 활용하되, 재량적발생액의 규모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DA에 절대값을 취한 후 4분위로 구분하여 가장 높은 분위(4분위)에 속하는 경우 HIGHDA 그룹으로 설정하고, 가장 낮은 분위(1분위)에 속하는 경우 LOWDA 그룹으로 설정한다. 재량적발생액이 양(+)으로 크거나 음(-)으로 큰 경우 모두 경영자의 회계추정에 자의성 및 오차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회계이익의 품질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을 활용하여 회계이익 품질 정도에 따른 최저한세 납부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차이를 측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룹별로 식(5)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후 그룹별 MINTAXDY 계수값을 차이를 분석하여, DA의 절대값이 높은 그룹이 DA의 절대값이 낮은 그룹에 비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정도가 더 낮은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IV. 실증분석 결과

4.1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Table 2>에서 제시한다. $COMPAVG_{t+1}$ 의 평균은 -0.012 , 중위수는 -0.005 , $COMPME_{t+1}$ 의 평균은 -0.031 , 중위수는 -0.021

로써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난다(김정택과 최우석, 2020). 본 연구의 표본 중 약 22%에 해당하는 기업-연도가 최저한세 납부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량적발생액의 평균과 중위수는 모두 영(0)에 가까워 측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형회계법인에게 감사받은 기업-연도는 약 5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연도는 약 43% 수준으로 나타난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No.	Mean	Median	S.D.	Q1	Q3
<i>COMPAVG_{t+1}</i>	9,779	-0.012	-0.005	0.025	-0.011	-0.003
<i>COMPMED_{t+1}</i>	9,779	-0.031	-0.021	0.034	-0.032	-0.015
<i>MINTAXDY</i>	9,779	0.215	0.000	0.411	0.000	0.000
<i>SIZE</i>	9,779	26.165	25.867	1.474	25.153	26.930
<i>DEBT</i>	9,779	0.439	0.441	0.203	0.274	0.594
<i>BTM</i>	9,779	1.196	0.981	0.888	0.556	1.576
<i>SALESGR</i>	9,779	0.074	0.038	0.309	-0.062	0.147
<i>OUTSALES</i>	9,779	0.183	0.002	0.280	0.000	0.311
<i>ROA</i>	9,779	0.013	0.024	0.098	-0.011	0.060
<i>DA</i>	9,779	-0.004	-0.002	0.085	-0.044	0.038
<i>LOSS</i>	9,779	0.292	0.000	0.454	0.000	1.000
<i>BIG4</i>	9,779	0.511	1.000	0.500	0.000	1.000
<i>KOSPI</i>	9,779	0.426	0.000	0.495	0.000	1.000

1) Variable definitions

- COMPAVG* : Average of the top 4 values of financial comparability by firm ;
- COMPMED* : Median value of financial comparability by firm ;
- MINTAXDY* : Dummy variable with a value of 1 if the minimum tax is subject to payment ;
- SIZE* : Natural logarithm of total assets ;
- DEBT* : Total liabilities divided by total assets ;
- BTM* : Book value of equity divided by market value of equity ;
- SALESGR* : Sales growth rate ;
- OUTSALES* : Proportion of exports ;
- ROA* : Return on total assets ;
- DA* : Discretionary accruals ;
- LOSS* : Dummy variable with a value of 1 if firm has a net loss for the current fiscal year ;
- BIG4* : Dumy variable with a value of 1 if firm is audited by big4 accounting firms ;
- KOSPI* : Dummy variable with a value of 1 if firm is listed in the KOSPI market.

4.2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서 제시한다. 대각선을 기준으로 우측 상단에 제시된 상관관계계수는 스피어만(Spearman) 상관관계계수, 좌측 하단에 제시된 상관관계계수는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계수이다. $COMPAVG_{t+1}$, $COMP MED_{t+1}$ 와 $MINTAXDY$ 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피어슨 상관관계계수를 기준으로 모두 유의한 음(-)의 관련성, 스피어만 상관관계계수를 기준으로 $COMP MED_{t+1}$ 와 $MINTAXDY$ 간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다만, $COMPAVG_{t+1}$, $COMP MED_{t+1}$ 와 다른 변수 간 상관관계계수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 연구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최저한세 납부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간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Table 3〉 Correlation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i>COMPVG_{t+1}</i>		0.751*	-0.006	0.093*	-0.294*	-0.095*	0.082*	0.083*	0.268*	0.095*	-0.308*	0.048*	-0.028*
2 <i>COMPMED_{t+1}</i>	0.938*		-0.034*	0.191*	-0.285*	-0.047*	0.090*	-0.046*	0.289*	0.096*	-0.359*	0.110*	0.073*
3 <i>MINTAXDY</i>	-0.031*	-0.040*		-0.103*	-0.022*	-0.032*	0.008	0.060*	0.033*	0.014	0.010	-0.056*	-0.099*
4 <i>SIZE</i>	0.006	0.057*	-0.100*		0.276	0.344*	0.072*	-0.110*	0.165*	0.000	-0.213*	0.407*	0.554*
5 <i>DEBT</i>	-0.282*	-0.324*	-0.020*	0.274*		0.003	0.033*	-0.049*	-0.355*	-0.131*	0.237*	0.098*	0.142*
6 <i>BTM</i>	-0.048*	-0.043*	-0.033*	0.323*	0.034*		-0.131*	-0.052*	-0.027*	0.065*	-0.106*	0.073*	0.256*
7 <i>SALESGR</i>	0.070*	0.066*	0.031*	0.024*	0.034*	-0.075*		-0.038*	0.314*	0.055*	-0.256*	0.016	-0.030*
8 <i>OUTSALES</i>	0.065*	0.017	0.039*	-0.057*	-0.009	-0.048*	-0.014		-0.022*	0.007	0.033*	-0.039*	-0.091*
9 <i>ROA</i>	0.280*	0.339*	0.009	0.209*	-0.284*	0.052*	0.197*	-0.013		0.313*	-0.787*	0.069*	0.028*
10 <i>DA</i>	0.130*	0.158*	0.009	0.021*	-0.136*	0.046*	0.042*	-0.012	0.451*		-0.285*	-0.042*	0.000
11 <i>LOSS</i>	-0.264*	-0.328*	0.010	-0.191*	0.246*	-0.041*	-0.160*	0.045*	-0.700*	-0.300*		-0.081*	-0.091*
12 <i>BIG4</i>	0.005	0.036*	-0.056*	0.419*	0.101*	0.078*	-0.019	-0.015	0.084*	-0.035*	-0.081*		0.274*
13 <i>KOSPI</i>	-0.092*	-0.049*	-0.099*	0.547*	0.148*	0.250*	-0.050*	-0.085*	0.060*	0.009	-0.091*	0.274*	

1) Refer to <Table 2> for the variable definitions.

2)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0.05 level.

4.3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에 대한 분석결과를 <Table 4>에서 제시한다. 분석결과, $COMPAVG_{t+1}$ 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열(1)과 $COMP MED_{t+1}$ 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열(2)의 결과 모두 최저한세 납부에 따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Table 4> Alternative Minimum Tax Payment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Variables	(1) DV= $COMPAVG_{t+1}$	(2) DV= $COMP MED_{t+1}$
<i>Intercept</i>	-0.032*** (-3.19)	-0.074*** (-5.71)
<i>MINTAXDY</i>	-0.003*** (-3.35)	-0.004*** (-3.30)
<i>SIZE</i>	0.001*** (3.56)	0.003*** (5.13)
<i>DEBT</i>	-0.024*** (-8.26)	-0.036*** (-9.59)
<i>BTM</i>	-0.000 (-0.68)	-0.000 (-0.42)
<i>SALESGR</i>	0.002** (2.06)	0.002 (1.14)
<i>OUTSALES</i>	0.002* (1.94)	0.003* (1.73)
<i>ROA</i>	0.032*** (4.20)	0.052*** (5.61)
<i>DA</i>	0.002 (0.37)	0.003 (0.55)
<i>LOSS</i>	-0.006*** (-6.40)	-0.011*** (-8.18)
<i>BIG4</i>	0.000 (0.67)	0.001 (0.95)
<i>KOSPI</i>	-0.005*** (-3.98)	-0.006*** (-4.12)
<i>IND dummy</i>	9,779	9,779
<i>YEAR dummy</i>	0.207	0.292
No of obs.	9,779	9,779
Adj. R-sq.	0.207	0.292

1) Refer to <Table 2> for the variable definitions.

2) *, **,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0.10, 0.05, and 0.01 levels, respectively.

3) T-statistics in parentheses are corrected for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ing at the firm level.

이러한 결과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처리에 대한 경영자의 의도로 인해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한 재무제표 인식 시기가 달라져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 *SIZE*, *ROA*는 유의한 양(+)¹의 관계, *DEBT*, *LOSS*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어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5>에서 제시한다. 열(1)과 열(2)는 *COMPAVG_{t+1}*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재량적발생액의 수준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재량적발생액의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만 최저한세 납부에 따른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룹별 회귀분석에서 산출된 *MINTAXDY* 계수값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또한 재량적발생액의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최저한세 납부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간 더욱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 열(3)과 열(4)는 *COMPMED_{t+1}*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재량적발생액의 수준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며, 열(1)과 열(2)의 결과와 유사하게 재량적발생액의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최저한세 납부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간 더욱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²). 이러한 결과는 재량적발생액이 높은 기업인 경우 최저한세 납부에 따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재량적발생액은 경영자의 의도에 따라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 또는 불확실성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기에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Table 5) Alternative Minimum Tax Payment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under the Level of Discretionary Accruals

Variables	(1) DV= <i>COMPAVG_{t+1}</i>		(2) DV= <i>COMPMED_{t+1}</i>	
	<i>HIGHDA</i>	<i>LOWDA</i>	<i>HIGHDA</i>	<i>LOWDA</i>
<i>Difference of MINTAXDY</i>	-0.004** (-2.06)		-0.003** (-2.68)	
<i>Intercept</i>	-0.008 (-0.31)	-0.029*** (-2.83)	-0.060* (-1.80)	-0.062*** (-4.65)
<i>MINTAXDY</i>	-0.006*** (-2.77)	-0.001 (-1.60)	-0.008*** (-2.91)	-0.002* (-1.73)
<i>SIZE</i>	0.001 (0.80)	0.001*** (3.02)	0.003** (1.99)	0.002*** (4.06)
<i>DEBT</i>	-0.034*** (-5.90)	-0.018*** (-5.17)	-0.051*** (-6.97)	-0.029*** (-6.49)

2) 재량적발생액 수준을 중위수를 기준으로 재량적발생액이 높은 그룹과 재량적발생액이 낮은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한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Table 5) Alternative Minimum Tax Payment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under the Level of Discretionary Accruals (continued)

Variables	(1) DV=COMPAVG _{t+1}		(2) DV=COMPMED _{t+1}	
	HIGHDA	LOWDA	HIGHDA	LOWDA
<i>BTM</i>	0.000 (0.13)	-0.002*** (-2.97)	-0.001 (-0.58)	-0.002*** (-2.69)
<i>SALESGR</i>	0.005*** (3.09)	0.000 (0.24)	0.005** (2.46)	-0.000 (-0.09)
<i>OUTSALES</i>	0.005* (1.93)	0.001 (0.82)	0.007* (1.95)	0.001 (0.31)
<i>ROA</i>	0.031*** (2.86)	0.011 (0.79)	0.052*** (3.80)	0.018 (1.12)
<i>DA</i>	-0.007 (-1.36)	-0.003 (-0.10)	-0.010 (-1.53)	-0.017 (-0.43)
<i>LOSS</i>	-0.008*** (-3.71)	-0.006*** (-3.80)	-0.013*** (-4.79)	-0.010*** (-4.65)
<i>BIG4</i>	0.001 (0.45)	-0.000 (-0.08)	0.001 (0.44)	0.000 (0.40)
<i>KOSPI</i>	-0.011*** (-3.66)	-0.002** (-2.09)	-0.013*** (-3.72)	-0.003*** (-2.59)
<i>IND dummy</i>	<i>Included</i>	<i>Included</i>	<i>Included</i>	<i>Included</i>
<i>YEAR dummy</i>	<i>Included</i>	<i>Included</i>	<i>Included</i>	<i>Included</i>
No of obs.	2,444	2,445	2,444	2,445
Adj. R-sq.	0.236	0.186	0.320	0.250

1) Refer to <Table 2> for the variable definitions.

2) *, **,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0.10, 0.05, and 0.01 levels, respectively.

3) T-statistics in parentheses are corrected for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ing at the firm level.

4.4 강건성 분석 결과

<Table 6>은 앞선 분석결과가 최저한세 납부 대상 기업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인해 나타날 개연성을 낮추기 위해 유효세율을 측정할 때 포괄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대신 법인세부담액을 활용하여 측정한 후 분석을 재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법인세부담액은 현금흐름표상 법인세납부액을 이용하며, 실제 현금이 지출된 금액을 활용함으로써 세액공제 등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Dyrenge et al., 2008). 분석결과, COMPAVG_{t+1}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첫 번째 열과 COMPMED_{t+1}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두 번째 열의 결과

모두 최저한세 납부에 따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최저한세 납부 대상 기업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강건성을 보여 준다.

〈Table 6〉 Cash-based Alternative Minimum Tax Payment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Variables	(1) DV=COMPAVG _{t+1}	(2) DV=COMPMED _{t+1}
<i>Intercept</i>	-0.031*** (-3.07)	-0.071*** (-5.58)
<i>MINTAXDY_CASH</i>	-0.003*** (-4.45)	-0.004*** (-5.14)
<i>SIZE</i>	0.001*** (3.48)	0.003*** (5.03)
<i>DEBT</i>	-0.024*** (-8.21)	-0.036*** (-9.55)
<i>BTM</i>	-0.000 (-0.81)	-0.000 (-0.57)
<i>SALESGR</i>	0.002** (2.24)	0.002 (1.38)
<i>OUTSALES</i>	0.002** (1.99)	0.003* (1.78)
<i>ROA</i>	0.033*** (4.28)	0.054*** (5.73)
<i>DA</i>	0.001 (0.29)	0.002 (0.44)
<i>LOSS</i>	-0.007*** (-6.70)	-0.011*** (-8.50)
<i>BIG4</i>	0.000 (0.65)	0.001 (0.93)
<i>KOSPI</i>	-0.005*** (-3.96)	-0.006*** (-4.11)
<i>IND dummy</i>	<i>Included</i>	<i>Included</i>
<i>YEAR dummy</i>	<i>Included</i>	<i>Included</i>
No of obs.	9,779	9,779
Adj. R-sq.	0.207	0.293

1) Refer to <Table 2> for the variable definitions.

2) *, **,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0.10, 0.05, and 0.01 levels, respectively.

3) T-statistics in parentheses are corrected for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ing at the firm level.

<Table 7>은 앞선 분석결과가 내생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해 분석대상 표본을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표본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최저한세 납부 대상 기업과 최저한세 납부 대상이 아닌 기업으로 그룹을 나누어 그룹 간 t검정을 통해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다음으로,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를 이용하여 프로빗(probit) 분석 방법으로 성향점수를 산정한다. 성향점수를 산정한 후 최저한세 납부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연도별로 최저한세 납부 대상 기업과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최저한세 납부 대상이 아닌 기업을 일대일로 매칭한다. 마지막으로, 매칭된 표본만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Table 7>의 Panel A에서는 최저한세 납부 대상 기업과 최저한세 납부 대상이 아닌 기업 간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와 성향점수매칭 전과 성향점수매칭 후 변수의 차이를 제시한다. 최저한세 납부 대상 기업은 최저한세 납부 대상이 아닌 기업에 비해 기업규모, 부채비율, 장부-시장비율이 작고, 매출액성장률과 수출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성향점수매칭 이후에는 최저한세 납부 대상 기업과 최저한세 납부 대상이 아닌 기업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성향점수매칭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의 Panel B는 성향점수매칭을 수행한 이후의 재구성된 표본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대상 표본은 *MINTAXDY*가 1의 값을 가지는 2,107개의 표본에 대하여 *MINTAXDY*가 0의 값을 가지는 2,107개의 표본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총 4,214개의 기업-연도로 이루어진다. 분석결과, *COMPAVG_{t+1}*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첫 번째 열과 *COMPMED_{t+1}*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두 번째 열의 결과 모두 최저한세 납부에 따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내생성으로 인해 나타날 가능성을 완화하며, 앞선 결과가 강건함을 보여준다.

<Table 7> Propensity Score Matching

Panel A : T-test by <i>MINTAXDY</i> dummy variable						
	Before matching			After matching		
	<i>MINTAXDY</i> =1 (N=2,248)	<i>MINTAXDY</i> =0 (N=8,288)	Diff.	<i>MINTAXDY</i> =1 (N=2,248)	<i>MINTAXDY</i> =0 (N=2,248)	Diff.
<i>SIZE</i>	25.885	26.242	-0.357***	25.885	25.896	0.011
<i>DEBT</i>	0.431	0.441	-0.010*	0.431	0.436	0.005
<i>BTM</i>	1.139	1.211	-0.072***	1.139	1.156	0.017
<i>SALESGR</i>	0.093	0.069	0.024***	0.093	0.104	0.011
<i>OUTSALES</i>	0.204	0.177	0.026***	0.204	0.200	-0.004

〈Table 7〉 Propensity Score Matching (continued)

Panel A : T-test by <i>MINTAXDY</i> dummy variable						
	Before matching			After matching		
	<i>MINTAXDY</i> =1 (N=2,248)	<i>MINTAXDY</i> =0 (N=8,288)	Diff.	<i>MINTAXDY</i> =1 (N=2,248)	<i>MINTAXDY</i> =0 (N=2,248)	Diff.
<i>BIG4</i>	0.458	0.525	-0.068***	0.458	0.456	-0.002
<i>KOSPI</i>	0.333	0.452	-0.119***	0.333	0.351	0.018

Panel B : Alternative Minimum Tax Payment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Variables	(1) $DV=COMPAVG_{t+1}$	(2) $DV=COMP MED_{t+1}$
<i>Intercept</i>	-0.003 (-0.20)	-0.040* (-1.82)
<i>MINTAXDY</i>	-0.002*** (-2.78)	-0.003*** (-2.59)
<i>SIZE</i>	0.000 (0.64)	0.002* (1.82)
<i>DEBT</i>	-0.029*** (-7.15)	-0.044*** (-8.45)
<i>BTM</i>	-0.000 (-0.45)	-0.001 (-0.56)
<i>SALESGR</i>	0.002 (1.56)	0.001 (0.61)
<i>OUTSALES</i>	0.004** (2.52)	0.005** (2.42)
<i>ROA</i>	0.016** (2.07)	0.035*** (3.22)
<i>DA</i>	-0.003 (-0.43)	-0.004 (-0.48)
<i>LOSS</i>	-0.007*** (-4.43)	-0.011*** (-5.76)
<i>BIG4</i>	-0.000 (-0.38)	0.000 (0.07)
<i>KOSPI</i>	-0.005*** (-3.03)	-0.006*** (-3.01)
<i>IND dummy</i>	<i>Included</i>	<i>Included</i>
<i>YEAR dummy</i>	<i>Included</i>	<i>Included</i>
No of obs.	4,214	4,214
Adj. R-sq.	0.194	0.280

1) Refer to <Table 2> for the variable definitions.

2) *, **,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0.10, 0.05, and 0.01 levels, respectively.

3) T-statistics in parentheses are corrected for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ing at the firm level.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최저한세 납부 여부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관련성을 가지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반드시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정해놓은 제도이다.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조세혜택을 적용하여 산출한 납부세액과 최저한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조세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며, 최저한세로 배제된 조세혜택은 이월이 가능하여 차후 세액공제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한세 납부기업은 이월된 조세혜택을 이익조정 수단으로 활용하여, 납부하지 않은 기업의 회계이익과 속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재무보고 행태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저한세에 인해 발생하는 차이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2011년부터 2019년의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 납부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간 음(-)의 관계를 보였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처리에 대한 경영자의 의도로 인해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한 재무제표 인식 시기가 달라져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최저한세 납부와 비교가능성의 관계는 회계이익의 품질이 낮은 기업에서 더 큰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한세의 납부가 회계추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회계 인식의 시기 및 방법에 차이를 발생시켜 비교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여 관련 분야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비교가능성의 결정요인으로서 조세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비교가능성 연구 분야를 확장하였다. 또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법상 동기가 기업의 회계이익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교가능성 측정치가 회계이익과 주가의 관련성을 기초로 측정되었다는 특성이나 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최저한세 납부 대상 기업을 측정하는 방법 또한 실제로 해당 기업이 최저한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가 아닌 기업의 재무자료를 통해 추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에 대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 관련 정책입안자 관점에서 조세정책이 본래의 정책목적 외에 투자, 회계선택 등 기업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 입안 시 이러한 점 또한 고려해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종권(2001), “세율인하 및 최저한세와 이익조정”, **세무학연구**, 18(2), 167-200.
- 권순용, 심한택(2000), 최저한세 납부가능성과 이익조정, **세무학연구**, 16, 61-84.
- 김용식, 박상훈(2018), 이익유연화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7(6), 1339-1365. <https://doi.org/10.17287/kmr.2018.47.6.1339>
- 김정택, 최우석(2020), 경영자에 대한 주주의 견제수준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9(2), 415-448. <https://doi.org/10.17287/kmr.2020.49.2.415>
- 문해원, 조은혜, 최관(2016), 기업수명주기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경영학연구**, 45(1), 67-93. <https://doi.org/10.17287/kmr.2016.45.1.67>
- 박종일, 나경아(2016), 비상장기업의 세무보고 공격성이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 **세무와 회계연구**, 5(1), 31-84.
- 배성호, 오광욱, 최경수(2012), 이월세액공제 기업의 소득 이전 행위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저널**, 21(3), 167-196.
- 신영효, 오광욱(2018), 최저한세 납부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본원적발생액과 재량적발생액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18(3), 77-104. <https://doi.org/10.35636/ktr.2018.18.3.003>
- 신영효, 오광욱(2020), 기업수명주기별 최저한세 납부기업의 회계정보 질적 특성 분석, **세무학연구**, 37(4), 9-43. <https://doi.org/10.35850/KJTR.37.4.01>
- 안혜진, 최세라, 박선영(2020), 경영자의 능력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45(4), 253-290. <https://doi.org/10.24056/KAR.2020.04.006>
- 오광욱, 정규언, 김선미(2011), “최저한세 납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용한 조세계획”, **세무학연구**, 28(1), 209-238.
- 장기용(1998), “최저한세가 법인세유연화와 이익유연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세무학연구**, 12, 7-40.
- 정석우, 배성호, 오광욱(2012), “최저한세 납부기업의 재무보고이익 주가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 **세무학연구**, 29(1), 105-136.
- 최승욱(2018), “저품질의 회계이익이 비교가능할 수 있는가? 재량적발생액과 비교가능성의 관계 분석”,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60(2), 181-220. <https://doi.org/10.22781/kicpa.2018.60.2.181>
- 최승욱(2019), “이익 창출 능력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 DuPont 분석의 이용”, **회계저널**, 28(3), 1-30. <https://doi.org/10.24056/KAJ.2019.04.002>

최윤이(2020), “최저한세 납부 기업이 이익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개발의 투자가 매개하는 지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91, 143–161.
<https://doi.org/10.21073/kiar.2020..91.007>

〈외국문헌〉

- Barth, M. E., Landsman, W. R., Lang, M., & Williams, C.(2012), Are IFRS-based and US GAAP-based accounting amounts comparable?. *Journal of Accounting Economics*, 54(1), 68–93. <https://doi.org/10.1016/j.jacceco.2012.03.001>
- Boynton, C. E., Dobbins, P. S., & Plesko, G. A.(1992), Earnings management and the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0, 131–153. <https://doi.org/10.2307/2491198>
- Chen, C. W., Collins, D. W., Kravet, T., & Mergenthaler, R. D.(2018),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nd the efficiency of acquisition decision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5(1), 164–202. <https://doi.org/10.1111/1911-3846.12380>
- Choi, J. H., Choi, S., Myers, L., & Ziebart, D.(2019),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nd informativeness of stock prices about future earning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6(1), 389–417. <https://doi.org/10.1111/1911-3846.12442>
- Dhaliwal, D. & Wang, S. W.(1992), The effect of book income adjustment in the 1986 alternative minimum tax on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5(1), 7–26. [https://doi.org/10.1016/0165-4101\(92\)90010-Y](https://doi.org/10.1016/0165-4101(92)90010-Y)
- De Franco, G., Kothari, S. P. & Verdi, R.(2011), The benefits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9(4), 895–931. <https://doi.org/10.1111/j.1475-679X.2011.00415.x>
- Dhole, S., Liu, L., Lobo, G. J., & Mishra, S.(2021), Economic policy uncertainty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40(1), 106800. <https://doi.org/10.1016/j.jaccpubpol.2020.106800>
- Fang, X., Li, Y., Xin, B., & Zhang, W. J.(2016),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nd debt contracting : Evidence from the syndicated loan market. *Accounting Horizons*, 30(2), 277–303. <https://doi.org/10.2308/acch-51437>
- Francis, J. R., Pinnuck, M. L., & Watanabe, O.(2014), Auditor style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The Accounting Review*, 89(2), 605–633. <https://doi.org/10.2308/accr-50642>
- Francis, J., LaFond, R., Olsson, P., & Schipper, K.(2005), The market pricing of accruals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2), 295–327.

<https://doi.org/10.1016/j.jacceco.2004.06.003>

Gramlich, J. D.(1991), The effect of the alternative minimum tax book income adjustment on accrual decision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3(1), 36–56.

Manzon, G. B.(1992), Earnings management of firms subject to the alternative minimum tax.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4(2), 88–111.

Scott, W. R.(2014), *Financial Accounting Theory*. Pearson Canada.

Wang, S.(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reporting practices and the 1986 alternative minimum tax. *The Accounting Review*, 69(3), 495–506.

“본 논문은 학회윤리규정을 준수하였으며 논문에 대한 판권을 학회에 위임합니다.”

<Abstract>

Alternative Minimum Tax Payment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Sung - Min Jeon** · Sang - Hyuk Lee***

[Purpos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the alternative minimum tax payment on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Comparability indicates that the accounting systems of two different entities translate identical economic events into identical financial statements. Firms paying the alternative minimum tax payment show different accounting information properties and financial reporting behaviors compared to non-alternative minimum tax payment firms because they have tax credits carried forward. Managers have difficulty to determine whether the carried forward tax credit can be applied, which can increase a firm's cash flow uncertainty. Thus, even if the same event occurs, the events will likely be converted to financial statements differently due to the alternative minimum tax payment.

[Methodology] We conduct empirical analysis using publicly traded Korean firms from 2011 to 2019.

[Findings] We find that firms paying the alternative minimum tax payment have lower comparability.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lternative minimum tax payment and comparability is more pronounced for firms with low earnings quality.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expands research related to comparability by revealing that tax regulation can be a determinant of comparability. In addition, it contributes to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alternative minimum tax payment can affect the firm's accounting information in addition to its policy purpose.

Key words : alternative minimum tax payment, carried forward tax credits,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earnings quality

* This resear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Hansung University.

** Researcher (Ph.D.), Institute for Business Research and Education(IBRE), Korea University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Social Science, Hansu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